

손님 하나만을 생각하는 자세로
손님의 자리를
비워드립니다



2021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
(Best Private Bank in Korea)



2021 글로벌 최우수 혁신 PB은행
(Most Innovative Private Bank in the World)



Edward Elgar —————
Introduction and Allegro,
op. 47

엘가
서주와 알레그로,
작품번호 47

Wolfgang Amadeus
Mozart —————
Flute Concerto No. 1,
K. 313, G Major

모차르트
플루트 협주곡 제1번 사장조,
괴헬번호 313

Wolfgang Amadeus
Mozart —————
Flute Concerto No. 2,
K. 314, D Major

모차르트
플루트 협주곡 제2번 라장조,
괴헬번호 314

Franz Schubert —————
Symphony No. 6,
'The Little', C Major

슈베르트
교향곡 제6번 다장조,
'작은 다장조'

지휘
함신의

Mozart Flute Concertos

두 개의
모차르트
플루트
협주곡

02. 22 Sat

5:00 PM

예술의전당콘서트홀

메이비지
조성현

심포니 S.O.N.G 이사진

BOARD OF DIRECTORS

이사장

문형주

부이사장

안정근

감사

김일규

이사

문형주

안정근

김일규

송백규

이경혜

이주현

김희련

낮은 소리

LOW VOICES

권상준

김태구

백수인

오승훈

윤정웅

장명식

2024~2025시즌 연 회원 후원자 명단

마에스트로 Circle

하나은행

마스터즈 Circle

(주)풍산

말리 Circle

(유)세봉

(주)에프에스티

(주)티에스이

브람스 Circle

(주)디에스케이

(주)GFS

(주)골프존

브루크너 Circle

김석수

신승일

슈베르트 Circle

김창석

이경혜

윤정웅

(주)면사랑

(주)세아제강

영앤진세무법인

베토벤 Circle

엔피코리아

최영애

장원기

송백규

쇼팽 Circle

문형주

안정근

(주)다진

(주)KNW

박선주

모차르트 Circle

(주)코스모엔

김기태

서석호

신영만

전홍구

한수향

한정숙

하이든 Circle

고윤영

김종혁

신갑순

이근혁

계양 수치과

이숙희

김성렬

백방미

김은주

이용돈

권영성

이미영

최상욱

김종훈

김영기

한문성

김소정

박진형

유소정

박지윤

장윤정

다음 세대를 위한 오케스트라
심포니 S.O.N.G

2014년 8월, 지휘자 함신익은 후원자, 음악가들과 더불어 <Symphony Orchestra for the Next Generation>의 첫 자를 탄 <함신익과 심포니 S.O.N.G>을 창단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활발하게 연주활동을 해온 함신익과 심포니 송은 우리나라 최고의 민간 주도 오케스트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지휘자 함신익은 KBS교향악단, 대전시향 및 미국 유수의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를 거쳐 함신익과 심포니 송 창단 이후에도 유럽, 남미, 아시아 등 다양한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하며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심포니 송은 뛰어난 연주력, 창의적인 프로그램, 광범위한 사회공헌 연주 등 차세대 오케스트라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발전하며 각계각층의 지지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10년도 우리나라 오케스트라의 발전을 꿈꾸는 함신익과, 심포니 송을 응원하는 후원자들이 함께 발맞추어 이뤄갈 것입니다.

MISSION

- 대한민국 오케스트라의 통상적인 운영 체계를 뛰어넘어, 민간기업과 개인들이 후원자인 동시에 주인이 되는 것을 지향한다.
- 진정한 예술정신을 발휘하여 클래식 음악이 주는 고귀한 메시지를 통해 삶을 풍요롭게 한다.
- 음악을 통해 따뜻한 기적을 이루고 새로운 희망을 선사하는 나눔의 오케스트라로 자리하여 지역사회를 활기치게 한다.

VISION

- 뛰어난 기량을 가진 음악가들이 입단하여 프로연주자로서 최대 5년을 활동하면서 다음 세대에 필요한 예술가로 성장하게 한다.
- 국내 최고의 홀에서 진행되는 고품격 '마스터즈 시리즈'를 통한 최상의 연주로 관객의 만족을 추구한다.
- 유의미한 해외 연주를 통해 국제적 트렌드를 리딩하는 선도적 오케스트라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VALUE

- 오케스트라의 효율적 운영을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우수전문예술단체로 선정되었다.
- 한국 메세나 협회의 '기업과 예술의 만남'에서 노루홀딩스와 '베스트 커플상'을 수상하였다.
- 서울시의 전문예술단체로 선정되었다.

고맙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Mozart Flute Concertos

두 개의 모차르트 플루트 협주곡

Edward Elgar
1857~1934



Introduction and Allegro, op. 47

엘가 - 서주와 알레그로, 작품번호 47

Wolfgang Amadeus
Mozart
1756~1791



Flute Concerto No.1 in G Major, K.313

모차르트 - 플루트 협주곡 제1번 사장조, 궤헬번호 313

- I. Allegro maestoso ----- 활기찬 빠르기로 장엄하게
II. Adagio ma non troppo ----- 침착하고 편안하게
III. Rondo : Tempo di Menuetto ----- 론도 : 느리고 우아하게
플루트, 조성현

Wolfgang Amadeus
Mozart
1756~1791



Flute Concerto No.2 in D Major, K.314

모차르트 - 플루트 협주곡 제2번 라장조, 궤헬번호 314

- I. Allegro aperto ----- 활기있고 빠르게
II. Adagio ma non troppo ----- 침착하고 편안하게
III. Rondo : Allegro ----- 론도 : 활기찬 빠르기로
플루트, 조성현

Intermission

Franz Schubert
1797~1828



Symphony No.6 in C Major, 'The Little'

슈베르트 - 교향곡 제6번 다장조, '작은 다장조'

- I. Adagio - Allegro ----- 느리게 - 활기찬 빠르기로
II. Andante ----- 편안한 걸음걸이로
III. Scherzo : Presto ----- 스케르초 : 빠르게
IV. Allegro moderato ----- 조금 빠르게



심포니 송의 연주자들

예술감독	함신익					
바이올린	조가현*	박진형	강은실	김은지	김민하	문수빈
	박지윤	선유란	심소연	오하은	이화진	전지은
	정예린	최주은	홍예슬			
비올라	이화진	김효경	송수민	안예림	윤소은	장윤정
첼로	최예지	홍보경	이혜인	정혜솔		
더블베이스	고부현	강선률	김태현	윤영진		
플루트	김연수	조연선				
오보에	윤수연	김소정				
클라리넷	김나윤	최윤석				
바순	김윤지	어지은				
호른	김효정	조종현				
트럼펫	이진규	이혜진				
팀파니	황영광					
크리에이티브 팀	신현숙	고부현	구현정	김소정	유소정	이수민
	이창훈					

*약장

※ 명단은 악장/수석/부수석 외에는 가나다순 정렬입니다.

● 함신익은 대전시향(2001~2006)과 KBS 교향악단(2010~2012) 예술감독을 역임하고 2014년 함신익과 심포니 송을 창단하여 다음 세대를 위한 오케스트라를 표방했다. 기회가 필요한 젊은 유망 연주자를 단원으로 선발하고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정체성을 확립했다. 그가 다음 세대에 집중한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에는 ‘뉴월드 심포니’라는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학업을 마친 연주자들을 선발해 2년간 프로로 활동할 기회를 제공하고 그곳에서 실력을 쌓은 뒤 원하는 곳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인데 한국에도 그런 역할을 할 오케스트라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함신익과 심포니 송은 단원들이 최대 5년까지 활동할 수 있게 했고 함께하는 동안 되도록 심오한 레퍼토리를 다루고 한 곡을 연주하더라도 제대로 하도록 집중하여 연습하도록 합니다. 단원들은 자신의 희망을 위해 노력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지요.”

지휘자 함신익의 말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애정을 느낄 수 있다. 이는 사춘기 시절, 인상 깊게 관찰한 선교사들의 행적이나 실향민인 부모로부터 받은 선한 영향력에서 태동되었다 해도 과언 아니다. 가난하지만 신실했던 소년 시절의 경험은 그가 성장해 가며 생성된 보석 같은 사명 의식으로 발전했던 것이다.

● 함신익은 한국에서의 학업과 군 복무 후, 미국라이스대학교 이스트만 음악학교에서 지휘, 피아노, 성악, 이론 그리고 음악사를 배웠다. 그의 열정은 미국의 토양에서 발휘하게 되는데 재학시절 직접 구성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였고, 철학과 지휘 경험을 극대화하며 프로지휘자로서 뿔어 나갈 수 있는 견고한 발판을 구축했다. 심지어 아스펜의 여름 음악캠프에서도 자신의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등 거침없는 음악에 대한 열정을 쏟아부었다. 30대 초반까지 함신익은 미국에서 학업에 열중하였고 이후 세계 지휘कु쿨에 입상하며 1992년부터 프로 지휘자로 데뷔했다. 미국의

그린베이 심포니, 에블린 필하모닉, 타스카루사 심포니, 밀부룩 오케스트라 등 중·소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으로 활동하며 ‘오케스트라 부흥사’라는 별명을 얻어가며 주목받는 지휘자로 성장했다.

● 37세부터는 예일대 지휘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23년간 후학양성에 몰두했다. 그가 키워낸제자들은 유럽, 미국, 아시아의 중요한 오케스트라의 지휘단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으며 그의 지도를 받은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은 세계 메이저 오케스트라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심포니 송의 성장의 비결은 음악을 향한 열정과 진한 연습에서 거두는 실력입니다. 저는 단원들이 자신의 실력을 향상하도록 돕습니다. 단원의 실력이 제고되면 연주의 완성도는 배로 좋아집니다. 심포니 송의 마스터즈 공연에서는 모든 연주자가 열정적으로 연주하기에 모두가 특별하게 부각됩니다.”

● 실제로 2024년 12월 송년연주회에서 함신익과 심포니 송은 베토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공연 시간 내내 기립해 연주를 하기도 했다. 심포니 송의 마스터즈 시리즈는 연주하는 곡은 다르지만 언제나 특별함을 유지한다. 지휘자의 통찰력에 따른 연주자들의 열정이 그때그때마다 새롭고 유니크하기 때문이다.

● ‘더 윈’프로젝트로 전국의 문화예술 소외자를 위해 연주로 공헌하는 것도 심포니 송의 자랑 중 하나다. 더 윈 프로젝트로 음향이 완벽하게 구성된 실내에서만 제 역할을 한다는 기존 오케스트라의 편견을 무너뜨리며 클래식 장벽을 낮춘 결과도 거둘 수 있었다.

● 함신익과 심포니 송의 다음 10년은 지금까지의 10년보다 환경은 더 어려워지겠지만 더 열심히 노력하고자 한다. 마스터즈 시리즈 공연은 더욱 특별한 레퍼토리로 관객을 찾을 것이고 지역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공연도 횟수와 퀄리티 또한 제고할 것이다. 지휘자 함신익은 2025년도 음악으로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자 한다. 예술가로서 자신의 전부를 청중에게 전달하기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음악이 모든 것인 함신익, 그가 심포니 송과 함께 펼칠 예술가 정신을 기대한다.

지휘자

함신익

함신익과 심포니 송이 창단 10주년을 넘었다.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며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원년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 동안의 10년이 **고군분투** 孤軍奮鬪의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의 시간은 **절차탁마** 切磋琢磨의 시간이 될 것이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지휘자 함신익은 다음 세대를 위한 연주자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위해 매분 매초를 절차탁마하고 있다.

Q 심포니 송의 첫인상

A 함신익 선생님과 심포니 송의 활동은 오래전부터 봐왔지만 늘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젊은 음악가들로 이루어진, 열정 넘치는 오케스트라가 한국에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많은 관객분들에게 클래식을 친숙하게 알리고자 노력하며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이신 덕분에 한국의 클래식 음악이 더욱 풍요로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심포니 송과 처음 함께할 수 있어 이번 무대가 무척 기대되고, 열정 넘치는 모차르트를 느낄 수 있는 공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무반주 리사이틀, 고잉홀프로젝트 등 다양한 음악적 활동을 하고 계신데 작년 한 해 동안 가장 인상있었던 활동은?

A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 하나를 꼽기 어려울 정도로 2024년은 저에게 굉장히 많은 활력을 넣어준, 도전적이고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정말 다양하고 많은 연주를 했는데 특히 5월에 있었던 무반주 리사이틀은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플루트란 악기에 대해 초심으로 돌아가 공부하고, 온전한 악기 본연의 울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연습할 수 있는 도전적인 무대였습니다. 바로크 시대부터 현대 시대를 넘나들며 러닝타임만 2시간이 넘었는데, 이런 공연을 준비하며 고심했던 부분들과 플루트의 다채로운 매력들이 오롯이 전달될까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돌아켜보면 정말 용감했구나란 생각을 합니다.

Q 이번 심포니 송과의 협연에 대한 기대와 준비

A 수많은 오케스트라와 모차르트 플루트 협주곡을 연주했지만, 2번 협주곡을 한 공연에 올리는 건 저에게도 처음이라 큰 도전이자 ‘언젠가는 꼭 해야지’ 하며 마음 속으로 꿈꿔왔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렇게 함신익 선생님 그리고 심포니 송과 함께 특별한 무대에 함께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기쁘고 기다려집니다. 이미 훌륭한 음악가들의 다양한 해석이 있고, 연주할 때마다 해석이 달라지는 모차르트이기에 어떤 해석으로 플루트의 색깔을 관객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지 저 또한 기대가 됩니다. 저만의 음색을 다듬으며 짧은 오페라와 같이 다양한 캐릭터를 보여드리는 연주를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Q 앞으로의 연주 계획

A 올해도 다양한 실내악 페스티벌, 협연 무대, 그리고 작년 무반주 리사이틀에 이은 프로젝트로 올 하반기에는 색다른 리사이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독일과 이태리에서 플루트 국제 콩쿠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동시에 저의 연주도 예정되어 있고, 무엇보다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저희 고잉홀프로젝트의 <라벨 관현악곡 전곡 시리즈>가 굉장히 기대됩니다. 관현악 작법은 라벨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진다는 말처럼 새로운 색채를 담은 라벨의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니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프로필

플루티스트 조성현은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로 쾰른 귀르체니히 오케스트라에 입단한 지 불과 9개월 만에 종신 수석에 임명되며 큰 화제를 낳았다. 이미 솔리스트로서 영국 플루트 협회 콩쿠르 및 프리드리히 쿨라우 콩쿠르에서 우승을 거머쥐었고 제1회 세베리노 가젤로니 국제 콩쿠르에서는 우승과 더불어 베리오의 현정곡 ‘세첸차’를 가장 잘 연주한 사람에게 주는 특별상까지 함께 차지하며 세계 플루트계에 신성으로 떠올랐던 그는 2015년, 프라하의 봄 국제 콩쿠르에서 준

우승을 기록하며 다시 한번 그 입지를 확고히 다졌다.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카라얀 아카데미에서 오케스트라 커리어를 시작한 후 정기 연주회 및 투어에서 단원으로 활동했다. 2022년 5월,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클래식 음악 레이블인 데카 레이블을 통해 피아니스트 손열음과 작업한 첫 솔로 앨범 <슈만, 라이네케, 슈베르트>를 발매하여 국내외 평단의 호평을 받았고 두 사람의 듀오 리사이틀은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전석 매진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조성현은 한국을

Cho Sung-hyun

대표하는 관악주자로서의 저력을 다시 한번 과시하였다. 2019년부터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관현악과의 최연소 조교수로 전격 발탁되며 한국으로 활동 영역을 확장한 조성현은 세계 유수의 연주자들을 모아 결성한 비영리사단법인 고잉홀프로젝트의 오케스트라 디렉터이자 주축 멤버로 활약 중이며 현재 금호솔로이스츠, 일본 산교 플루트 아티스트, 플루트아트센터(FAC)의 음악감독, 국제 콩쿠르 심사위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한국 관악계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순수감성, 음악, 그리고 심포니 송

Edward Elgar Introduction and Allegro, op. 47
엘가 서주와 알레그로, 작품번호 47

영국의 한 시골마을 브로드히스(Broadheath, Worcestershire)의 가난한 피아노 조율사의 아들로 태어난 엘가(Sir Edward William Elgar, 1857~1934). 그는 여타 유럽 명문가(家) 출신 음악가들과는 달리 유년시절 동안 제대로 된 정규 음악교육을 받지 못했다. 또한 당대 강력한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에서 로마 가톨릭 신자였던 그의 신분은 주홍글씨처럼 그를 따라다녀 철옹성(鐵甕城) 같은 제도권 텃새를 뚫지 못한 채 오랜 기간 무명 음악가로 살아가게 하였다. 역설적이게도 독학으로 완성된 그의 작곡기법은 전통적인 틀에서 벗어나 그만의 독특한 음악 세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해주었다. 1899년 발표한 수수께끼 변주곡(Enigma Variations)으로 주목을 받으며 작곡가로서 입지를 다졌으며 이후, 위풍당당 행진곡, 첼로 협주곡, 사도들 등 수많은 명작을 남기면서 20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작곡가로 인정받게 된다. 1905년 엘가는 새롭게 창단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All Elgar Concert’를 위해 “서주와 알레그로”를 위촉받아 작곡하게 된다. 이 작품은 현악 4중주와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곡으로, 현악 연주자들의 기교를 마음껏 드러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초연 이후 반응은 다소 미온적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대중은 작품의 진가를 알아보게 되었고, 현재는 대표적인 현악 오케스트라 작품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바로크 시대의 합주 협주곡(Concerto grosso) 형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독주 악기군과 오케스트라 간의 대화가 작품 전반에 걸쳐 펼쳐지며, 다성적 텍스처와 화려한 현악 오케스트레이션이기가 막힌 걸작(傑作)이다.

서주: Introduction

웅장하고 장엄한 도입부로 시작하며, 곡의 주요 주제가 단조로 제시된다. 이 주제는 이후 빠른 악장에서 밝고 역동적인 분위기로 변모한다.



[엘가, 서주와 알레그로, 메인 주제]

제시부: Allegro

현악 4중주와 오케스트라가 활기차게 주제를 주고받으며 곡이 진행된다. 장조로 변모된 곡의 주요 주제가 기분 좋은 웃음을 자아낸다. 엘가는 이 작품에서 특히 바이올린이 갖는 올림과 역동성을 극대화하였는데, 바이올린 연주자로서의 그의 경험을 적극 반영하였다. 특히, 알레그로로 넘어가는 첫 번째 전환 부분에서는 솔로 4중주뿐만 아니라 오케스트라 전체에 걸친 다성적 전

Edward Elgar
Introduction and Allegro, op. 47

Sir Edward William Elgar (1857–1934) was born in Broadheath, Worcestershire, the son of a poor piano tuner. Unlike many of his European contemporaries, he lacked formal musical training and faced social barriers as a Roman Catholic in Protestant England. However, his self-taught approach allowed him to develop a unique musical voice. He first gained recognition with his Enigma Variations (1899), later composing masterpieces such as the Pomp and Circumstance Marches, Cello Concerto, and The Apostles, cementing his status as a leading English composer.

In 1905, Elgar was commissioned to write Introduction and Allegro for the London Symphony Orchestra’s “All Elgar Concert.” Scored for string quartet and string orchestra, the piece showcases virtuosity through intricate textures and lively interplay. Initially met with lukewarm reception, it later gained recognition as a cornerstone of the string orchestra repertoire. The work, a modern take on the Baroque Concerto Grosso, alternates between solo quartet and full orchestra, blending polyphonic textures with expressive string writing. The grand opening theme, introduced in a minor key, transforms dynamically throughout the piece, culminating in a joyful and energetic conclusion. Premiered on March 8, 1905, at Queen’s Hall in London, Introduction and Allegro remains a defining work in Elgar’s orchestral legacy. That June, he dedicated it to Samuel Sanford, wh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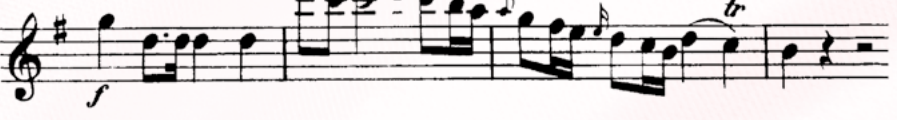
개가 훌륭하게 나타난다. 단순한 실내악과 오케스트라의 결합을 넘어, 엘가 특유의 서정성과 장대한 음악적 서사를 순수하고 담백하게 담아내었다. 이 곡은 종종 수수께끼 변주곡과 함께 연주되며, 엘가의 음악 세계를 대표하는 중요한 레퍼토리로 자리 잡고 있다. 1905년 3월 8일, 런던 퀸스홀(The Queen’s Hall)에서 엘가의 지휘로 초연되었으며, 같은 해 6월 예일 대학교에서 엘가에게 명예 음악 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새뮤얼 샌퍼드(Samuel Sanford, 1849~1910)에게 헌정되었다.

Wolfgang Amadeus Mozart Flute Concerto No.1 in G Major, K. 313
모차르트 플루트 협주곡 제 1번 사장조, 쿨헬번호 313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Wolfgang Amadeus Mozart, 1756~1791)는 음악사에서 가장 위대한 천재 중 한 명으로 손꼽히며, 그의 작품은 청아한 선율과 완벽한 형식미로 인해 시대를 초월한 명작(名作)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소위 “아기천사”로부터 내려 받은 직관적인 영감과 타고난 놀라운 논리적 구성력으로 수많은 정교하면서도 순수한 작품을 만들어내었다. 플루트 협주곡 제1번 G장조(K. 313)는 1777년에서 1778년 사이, 모차르트가 독일 만하임(Mannheim)에 머무는 동안 네덜란드의 음악 애호가 페르디난트 드장(Ferdinand Dejean, 1731~1797)의 요청으로 작곡된 곡이다. 18세기까지 플루트는 나무로 만들어져 음정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음조 또한 고르지 못하였다. 이런 연유에서인지 모차르트는 플루트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시 만하임 궁정악단의 뛰어난 플루티스트 요한 바티스트 벤들링(Johann Baptist Wendling, 1723~1797)의 연주에 크게 감명 받아 이 악기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 만하임은 18세기 후반 유럽 음악계에서 선진적인 음악 도시로 명망이 높았으며, 특히 만하임 궁정악단은 혁신적인 연주 기법과 표현 양식을 개척한 단체로 유명했다. 만하임 악파는 만하임 크레센도, 만하임 롤러, 만하임의 한숨 등의 기법을 발전시켰으며, 모차르트는 이곳에서 큰 음악적 영감을 받게 된다. 그는 당시 엄격한 규율과 제한 속에 갇혀 있던 찰츠부르크를 떠나 새로운 음악적 기회를 모색하고 있었고, 만하임에서의 경험은 그의 작곡 스타일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플루트의 맑고 투명한 음색을 극대화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으며 마침내 이 협주곡을 통해 아기천사가 들려주는 천상의 소리를 재현해 낼 수 있었다.

1악장, Allegro maestoso

화려하고 당당한 분위기의 리토르넬로(Ritornello, 오케스트라 도입부)로 시작되며, 제 1바이올린이 주제를 제시한다.



[1악장 제 1주제]

제 1주제는 힘차고 밝은 성격을 띠고 있으며, 두 번째 주제는 보다 우아하고 섬세한 선율로 진행된다. 플루트 솔로가 등장하면서 이 두 가지 주제를 자유롭게 변형하고 발전시키는데, 독주 악기와 오케스트라 간의 대화가 거칠지 않고 편안하다. 여타 협주곡에서의 솔로와 투티의 대결구조와는 판이하게 다른 부드러운 리더십이 돋보인다.

2악장, Adagio ma non troppo

약음기를 낀 현악기와 호른의 유니즌(Unison)으로 시작되며, 환상적이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만

helped secure him an honorary Doctor of Music degree from Yale University.

Wolfgang Amadeus Mozart
Flute Concerto No.1 in G Major, K. 313

Wolfgang Amadeus Mozart (1756–1791) is recognized as one of the greatest music geniuses, known for his pristine melodies and perfect formal balance. His Flute Concerto No. 1 in G Major, K. 313 was composed between 1777 and 1778 in Mannheim at the request of Dutch patron Ferdinand Dejean. Though not particularly fond of the flute, Mozart was inspired by the virtuosity of Johann Baptist Wendling, leading him to explore new expressive possibilities for the instrument. Mannheim was a major musical center in the late 18th century, with its court orchestra pioneering innovative techniques such as the Mannheim Crescendo and Mannheim Rocket. Mozart’s time there significantly influenced his compositional style, and in this concerto, he sought to maximize the flute’s clear and ethereal timbre.

I. Allegro maestoso

The movement begins with a grand orchestral introduction, presenting bold and graceful themes. The flute enters with elegant transformations of these themes, engaging in a refined dialogue with the orchestra.

II. Adagio ma non troppo

Muted strings and unison horns create a dreamlike atmosphere. The flute’s expressive melody unfolds gently,

들어낸다. 플루트 솔로는 부드럽고 유려한 선율을 통해 감성적 깊이를 더하며, 오케스트라는 이를 섬세하게 뒷받쳐 준다. 다만, 오케스트라 안에 배치된 두 대의 플루트가 오케스트라를 채색하는 편곡적 요소로 인해 솔로 악기의 개성이 다소 희석된다는 점이 아쉽다.

3악장, Rondo : Tempo di Menuetto

경쾌한 미뉴에트 리듬을 기반으로 한 론도 형식의 악장이다. 세련된 우아함과 유머가 넘치는 주제가 반복되며, 플루트의 재치 있는 활발한 움직임과 경쾌한 장식음이 특징적이다.



[3악장 론도 주제]

음악학자 알프레드 아인슈타인(Alfred Einstein, 1880~1952)은 이 악장을 가리켜 “세련된 영혼과 신선한 창이가 깃든 진실의 샘”이라고 극찬한 바 있다. 기교적 화려함보다는 악기의 자연스러운 서정성과 우아함 및 맑고 순수한 음색 자체를 강조한다.

Wolfgang Amadeus Mozart	Flute Concerto No. 2 in D Major, K. 314
모차르트	플루트 협주곡 제 2번 라장조, 궤헬번호 314

플루트 협주곡 2번은 협주곡 1번의 성공적인 초연 이후 이듬해인 1778년 초, 페르디난트 드장의 두 번째 의뢰로 완성된 작품이지만, 사실상 새로운 창작물이 아니라 기존의 오보에 협주곡(Oboe Concerto in C major, K. 314[271k])을 플루트에 맞게 편곡한 것이다. 당시 모차르트는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기보다는 기존의 곡을 편곡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원곡인 오보에 협주곡은 1777년 봄, 잘츠부르크에서 작곡되었으며, 모차르트는 이를 한 음 높여 라장조로 조옮김하고 플루트에 적합한 음형을 추가하여 재구성하였다. 이 협주곡은 기본적으로 오보에 협주곡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플루트의 음색과 특성을 고려한 변형이 가미되었는데 조옮김을 통해 플루트의 음색을 더욱 아름답게 빛낼 수 있게 되었고 악기에 용이한 옥타브 꾸밈음(아래 그림) 등이 추가되었다. 오케스트레이션에 있어서는 제 1번 협주곡과는 반대로 두 대의 오보에가 오보에 협주곡에서와 같이 그대로 유지되어 플루트 독주 솔로의 음색이 더욱 돋보이게 되었다.

1악장, Allegro aperto



[1악장 제 1주제와 옥타브 조정된(붉은 색 상자) 꾸밈음]

though its presence subtly blends with the orchestral texture.

III. Rondo : Tempo di Menuetto

A lively minuet theme recurs throughout, emphasizing the flute's lyricism and elegance rather than sheer virtuosity. Musicologist Alfred Einstein praised this movement as “a fountain of truth, infused with refined spirit and fresh creativity.”

Mozart's concerto remains a cornerstone of the flute repertoire, embodying both the technical finesse and delicate charm of his music.

Wolfgang Amadeus Mozart
Flute Concerto No. 2 in D Major, K. 314

Mozart's Flute Concerto No. 2 in D Major, K. 314, completed in early 1778, was a second commission from Ferdinand Dejean. Rather than composing a new piece, Mozart adapted his Oboe Concerto in C Major, K. 314 (271k), transposing it to D major and modifying it to suit the flute's timbre. This transposition enhanced the flute's brilliance, while added ornamentation and octave embellishments made it more idiomatic for the instrument. Unlike Flute Concerto No. 1, which features two flutes in the orchestra, this concerto retains the original oboes, allowing the solo flute to stand out more distinct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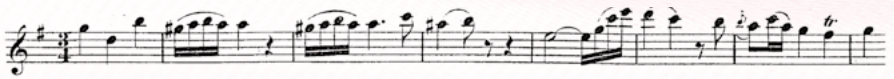
I. Allegro aperto

The movement's title, meaning “open” or “bright,” reflects its cheerful character. The flute enters with a sustained tonic note, evoking a bird soaring into the sky, contrasting with the oboe concerto's more grounded phrasing.

‘아페르토(Aperto)’는 “열려 있는, 개방적인”이라는 의미로, 경쾌하고 밝은 분위기를 강조한다. 플루트가 으뜸음을 길게 유지하며 등장하는 도입부는 마치 새가 푸른 하늘을 날아오르는 듯한 느낌을 준다. 오보에 협주곡에서의 다소 끌어내리는 듯한 음색과 대조적인 부분이다. 전체적으로 상쾌하고 활기찬 성격이 돋보이며, 오케스트라와의 조화가 거칠지 않다.

2악장, Adagio ma non troppo

서정적인 분위기의 느린 악장으로, 풍부한 감성과 우아한 선율이 돋보인다.



[2악장 주요 주제]

플루트의 선율이 보다 부드럽고 섬세하게 표현되며, 다채로운 장식음이 추가되었다. 원곡의 오보에 버전보다 한층 더 화려한 플루트 기법이 적용되었다.

3악장, Rondo : Allegro

유쾌하고 발랄한 론도 형식의 악장으로 모차르트 특유의 경쾌한 리듬과 생동감 넘치는 멜로디가 특징이다.



[3악장 론도 주제]

이 론도 주제는 이후 그의 오페라 ‘후궁으로부터의 탈출’(Die Entführung aus dem Serail, K.384)에서 블론데(Blonde)의 아리아 “얼마나 기쁜지”(Welche Wonne)로 재사용되었다. 모차르트의 플루트 협주곡 제2번 D장조는 플루트의 화려한 기교와 특성을 극대화하면서도, 원곡인 오보에 협주곡의 구조적 완성도를 유지하는 작품이다. 이러한 탓에 이 협주곡은 오보에 협주곡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된 형태의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제 1번 협주곡과 비교했을 때 보다 경쾌하고 명확한 표현이 강조되며, 플루트 특유의 밝고 선명한 음색이 더욱 분명해진다. 두 협주곡이 한 자리에 모인 이 흔치 않은 기회를 통해 각기 다른 개성과 아름다움을 비교해보며 감상해 보기 바란다.

Franz Schubert	Symphony No.6 in C Major, D. 589 ‘The Little’
슈베르트	교향곡 제 6번 다장조, 작품번호 589 ‘작은 다장조’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나 31년간의 짧은 생을 살다간 프란츠 슈베르트(Franz Peter Schubert, 1797~1828). 그는 무려 988개의 다양한 작품들을 작곡할 만큼 다작가(多作家)였지만 그의 삶은 병약함과 가난으로 채색된 소위 ‘불운한 무명 천재 예술가’의 전형(典型)을 그대로 따른다. 조울증 환자에 폭음과 알코올 중독 및 매독으로 평생 고생할 만큼 소위 방탕한 삶의 소유자였던 그는 음악에 있어서만큼은 그 누구보다 순수하였다. 모차르트(Wolfgang Amadeus Mozart, 1756~1791)를 숭상하였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베토벤(Ludwig von Beethoven, 1770~1827)을 그리워하며 존경하던 그는 어둡고 무거운 주제가 지배적이었던 당대 독일 문학에 대한 이해와 남다른 깊은 애정이 있었다. 이는 그의 불행했던 삶과 더불어 그의 음악이 소위 말러(Gustav Mahler, 1860~1911)로 대표되는 철학적 고뇌와 진지함이 추상적 기초(基調)로 작품을 통해 어렵게 엿혀있을 것 같은 추측을 불러일으키지만 오히려 그 음악적 어휘는 여느 클래식 음악 작품

II. Adagio ma non troppo

A lyrical and expressive slow movement, enriched with delicate phrasing and intricate ornamentation that enhances the flute's brilliance.

III. Rondo : Allegro

This lively rondo features playful rhythms and animated melodies. The main theme later appeared in Mozart's opera Die Entführung aus dem Serail, in Blonde's aria “Welche Wonne.”

Though based on the oboe concerto, Flute Concerto No. 2 stands as an independent masterpiece, showcasing the flute's bright and agile nature. Lighter and more transparent than Flute Concerto No. 1, it highlights the instrument's natural elegance and charm.

Franz Schubert
Symphony No.6 in C Major, D. 589 ‘The Little’

Franz Schubert (1797–1828) lived a brief yet prolific life, composing 988 works. Despite his immense output, he struggled with illness and poverty, embodying the “tragic, unrecognized genius.” Though deeply influenced by Mozart and Beethoven, Schubert's music is marked by clarity, sincerity, and a childlike purity. Best known for his 690 Lieder, he transformed themes of

에서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맑고 진솔하며 그 메시지에 내재된 순수한 동심(童心)은 매우 특별하다. 그는 특히 독일 예술 가곡 (Lied)에 천부적인 재능을 보여 690편에 이르는 주옥같은 노래를 남기는데 주로 삶과 죽음, 사랑과 이별 등의 무거운 주제를 다룸에도 불구하고 정갈한 음악적 수사(修辭)가 주제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 체념을 넘어선 승화된 감성이 곡을 가득 채운다. 13세에 작곡을 시작하였고, 15세에는 최초의 서곡을 썼으며 16세에 교향곡을 작곡한 이래 계속하여 교향곡 2,3번, 가곡 ‘물레 감는 그레첸(Gretchen am Spinnrade, D.118 No.2)’, ‘마왕(Erlkonig, D.328)’, ‘들장미(Heidenröslein, D.257)’ 등을 작곡하였는데, 18세 때까지 이미 140곡이나 되는 탁월한 곡을 써냈음은 천재 작곡가 모차르트의 유년시절에 견줄 만큼 대단한 것이었다. 슈베르트는 오늘 연주회의 엘가, 모차르트 같이 음악적 영감을 소위 직관 내지는 영적인 영역에서 찾는 작곡가 범주에 속했다. 이는 순수 이성논리에 기반을 둔 베토벤이나 브람스(Johannes Brahms, 1833~1897)의 그것과 대조된다.

슈베르트는 교향곡 제 5번에서 모차르트를 모델로 삼았으나, 6번 교향곡에서는 하이든과 베토벤의 영향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또한, 당시 빈을 휩쓴 로시니 음악 열풍의 영향을 받아 경쾌하고 유머러스한 요소도 포함되었다. 슈베르트는 한때 교향곡 작곡을 중단하고 “이탈리아 스타일” 서곡 두 곡을 작곡하기도 했는데, 이로 인해 그의 음악 어법에 로시니적인 가벼움과 유려함이 가미되었음을 알 수 있다. 1818년 2월에 완성된 이 작품은, 같은 C장조인 대(大) 교향곡 9번과 구별하기 위해 “작은 C장조 교향곡”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1827년 3월, 전기 작가 안톤 싯들러(Anton Schindler, 1795~1864)는 병상에 누워 있던 베토벤을 위로하기 위해 슈베르트의 가곡 모음집을 가져갔다. 이에 베토벤은 곡을 유심히 살펴본 후 “진실로, 슈베르트 안에는 순수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에는 베토벤의 그늘에 가려 널리 인정받지 못했으나, 사후 그의 교향곡과 가곡이 재조명되며 19세기 후반 이후 중요한 레퍼토리로 자리 잡았다. 안타깝게도 슈베르트의 교향곡들은 생전 단 한 곡도 출판되지 않았고, 공개적으로 연주된 적도 없었다.

1악장 Adagio - Allegro

첫 악장은 장중한 화음으로 시작되며, 이는 베토벤에게서 영향을 받은 듯하다. 그러나 곧이어 목관 악기가 주도하는 알레그로 주제가 등장하며, 전형적인 하이든의 재치가 연상되며 경쾌한 분위기가 시작된다.



[1악장 제 1주제]

슈베르트 특유의 조성 변화 기법이 특별한데, 전개부가 끝나기 직전 클라리넷과 바순이 먼저 주제를 연주한 후 오보에와 플루트가 이를 모방하는 카논 형식을 사용한 것이 꽤 흥미롭다. 마지막 코다에서는 웅장한 스타일이 암시되며 마무리된다.

2악장 Andante

온화한 주제와 강렬한 삼연음 패시지가 대비를 이루며 악장이 전개된다. 하이든적인 단순하고 명확한 선율이 중심을 이루지만, 슈베르트 특유의 선율적 변형이 가미되어 직관적이고 감각적인 순수한 서정성을 보여준다.

life, death, and love into transcendent beauty. Unlike Beethoven or Brahms, who composed through rigorous logic, Schubert’s work stemmed from intuition and a deeply spiritual connection to music. Schubert’s Symphony No. 6 reflects diverse influences, blending elements of Haydn, Beethoven, and Rossini. Completed in 1818, it was later nicknamed the “Little C Major Symphony” to distinguish it from his grander Ninth Symphony. Though overshadowed in his lifetime, Schubert’s symphonies and Lieder eventually secured his place as a cornerstone of Romanticism.

I. Adagio - Allegro

A majestic opening gives way to a lively theme led by woodwinds, evoking Haydn’s charm. Schubert’s harmonic play and canonic exchanges add depth, while the coda hints at grander symphonic aspirations.

II. Andante

A serene yet expressive movement contrasts a gentle theme with dramatic triplet passages. Schubert’s harmonic shifts lend it heartfelt lyricism, ultimately resolving into tranquility.

III. Scherzo : Presto

Playful and dynamic, this movement features sudden shifts in harmony and foreshadows the Scherzo of his later Ninth Symphony.

IV. Allegro moderato

The exuberant finale bursts with buoyant melodies, dotted rhythms, and lively orchestration, blending Haydn’s elegance, Rossini’s effervescence, and Beethoven’s structure.



[2악장 주요주제]

삼연음 패시지가 긴장감을 형성하며 중, 후반부를 메워가고 격정적인 외침이 있은 후 점차 잦아 들면서 평온하게 악장이 마무리된다.

3악장 Scherzo : Presto

스케르초 악장은 장난기 넘치는 성격과 갑작스러운 다이내믹 변화, 매력적인 화성 전환이 특징이다.



[3악장 스케르초 주제]

특히 빠른 패시지와 강렬한 리듬의 사용이 두드러지며, 이후 “대(大) C장조 교향곡”(9번)의 스케르초를 예고하는 듯한 대담한 구성이 작곡가의 의도를 엿볼 수 있게 한다.

4악장 Allegro moderato

마지막 악장은 빠르고 유쾌한 선율이 주를 이루는데, 활기찬 바이올린 반주 위에서 목관악기가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4악장 주요 주제]

마치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듯한 기분 좋은 미소는 점선 리듬과 생동감 넘치는 템포가 조화를 이루어간다. 코다에서는 축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극적인 대단원을 맞이한다. 하이든의 우아함과 재치, 로시니의 경쾌함과 활달함, 그리고 베토벤의 고집스런 교향악적 사고를 조화시키려는 작곡가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곡 전체를 지배하는 것은 단연코 슈베르트만의 순수하고 독창적인 음악적 목소리임이 분명하다. 마치 그 어떤 감미료를 쓰지 않고 순수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들어낸 훌륭한 전통 요리를 대하는 듯, 곡의 깊은 맛과 정직함, 순수함이 청자를 매료시킨다. 음악적 직관과 순수 논리 바탕위에 의도된 여러 선배들의 음악적 어휘의 인용으로 집대성한 아름다운 교향곡. 비록 “웅장한 스타일”은 아닐지 몰라도, 훌륭한 교향곡임에는 틀림없다.

순수의 가치를 잃어버린 시대. 길가에 핀 자그마한 꽃의 고운 빛깔에도 설레던 감성은 이제 옛 이야기가 되어 버린 듯하다. AI가 손쉽게 창출해내는 기름진 시각효과와 자극적인 소리의 홍수 속에 심포니 송의 오늘의 연주회가 가져다주는 향기가 무척이나 기분 좋다. 푸름이 가득한 산골 마을에 방문해 그 청아한 기운을 머금은 대청나무마루 위에서 즐기는 산채나물밥의 담백함. 도토리묵의 부드럽고 깔끔한 목넘김 같은 깨끗하고 맑은 작품들. 덕지덕지 얼룩진 유채화 캔버스 의 텁텁함을 잠시나마 잊고 심포니 송과 함께 물방울 맑은 소리 가득한 아름다운 수채화의 청아함을 즐기는 오늘 저녁이 되길 바란다.

글 지휘자,작곡가 박희정

Though not as monumental as Beethoven’s symphonies, Schubert’s Symphony No. 6 is an exquisite gem, brimming with sincerity and musical ingenuity. Its unpretentious charm invites listeners to savor its refreshing clarity—like wandering through a serene landscape, far from the clamor of modern life.



Gustav Mahler
Symphony No. 9, D Major

말러
교향곡 제9번 라장조

말러 교향곡 9번

Mahler



지휘
함신의

03. 13 Thu

7:30 PM

LOTTE
CONCERT HALL

티켓 VIP석 12만원 | R석 10만원 | S석 7만원 | A석 5만원 | B석 3만원 | C석 2만원 문의 심포니 송 02-549-0046

후원 아나은행 NOROO EG 주식회사 이지 POONGSAN WEATSE FST SEBONG GOLFZON DSK 화광교역(주)

SYMPHONY
SONG
SHINIK HAM



Mozart Flute Concertos

Elgar
Introduction and Allegro, op. 47

Mozart
Flute Concerto No. 1,
K. 313, G Major

조성현, flute

Mozart
Flute Concerto No. 2,
K. 314, D Major

조성현, flute

Schubert
Symphony No. 6,
'The Little', C Major

신년음악회

Beethoven
Prometheus Overture, op.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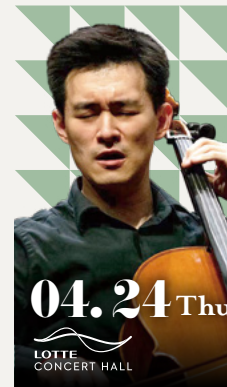
Dvořák
Cello Concerto,
op. 104, b minor
김민지, cello

Beethoven
Symphony No. 5,
op. 67, c minor



Mahler 9

Mahler
Symphony No. 9, D Major



Remembrance Ravel and Shostakovich

Mozart
Piano Concerto No. 21,
K. 467, C Maj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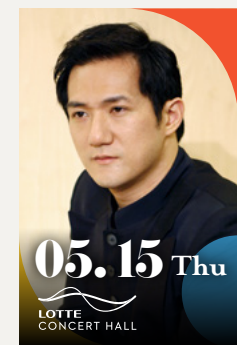
유영욱, piano

Ravel
Le Tombeau de Couperin

Shostakovich
Piano Concerto No. 1,
op. 35, c minor

유영욱, piano

Ginastera
Variaciones Concertantes



2025 함신의과 심포니 송 MASTERS SERIES

영웅들을 추모하며

Barber
Adagio for Strings

Mozart
Symphony No. 40,
K. 550, g minor

Mozart
Requiem, K. 626, d minor

김순영, 김선정, 이명현, 정인호,
인천시립합창단



Sibelius Special

Sibelius
Valse triste, op. 44

Sibelius
Violin Concerto, op. 47,
d minor

송지원, violin

Sibelius
Symphony No. 5, op. 82,
E Flat Major



Sir Stephen Hough Plays Grieg and Stephen Hough

스티븐 허프가 초연하는
스티븐 허프 피아노협주곡

Sir Stephen Hough
AGAIA a Basque Fantasy
for Orchestra

Grieg
Piano Concerto, op. 16,
a minor

Sir Stephen Hough
Piano Concerto
한국 초연

송년음악회

Beethoven
Symphony No. 9 in d minor,
op. 125 'Choral'

Bach
Christmas Oratorio
BWV 248, Part 1

Corelli
Concerto Grosso in g minor,
op. 6, No. 8
(Christmas Concerto)

김순영, 김선정, 이명현, 정인호,
인천시립합창단



Upcoming Concerts

03.02

3.1절 기념 음악회

연세대학교 백주년 기념관 - 오후 6시
무료 입장

03.13

2025 마스터즈 시리즈 III ‘말러 교향곡 9번’

롯데콘서트홀 - 오후 7시 30분



티켓 절찬 판매 중

04.19

삼성전자 신춘음악회

삼성전자 서천인재개발원 삼성홀 - 오후 5시

04.24

2025 마스터즈 시리즈 IV ‘봄의 협주곡’

롯데콘서트홀 - 오후 7시 30분



티켓 절찬 판매 중



회원권 구매 특별할인

Season Pass
Special Discount

시즌패스
Season Pass

조기구매할인혜택

※ VIP석은 100석 한정

2월 28일까지 구매시	VIP석	8회	—960,000원→	864,000원
	R석	8회	—800,000원→	720,000원
	S석	8회	—560,000원→	504,000원
	A석	8회	—400,000원→	360,000원
10%				
학생 특별 지원 할인 100석 한정 (학생 인증 필수)	A석	8회	—400,000원→	200,000원
	B석	8회	—240,000원→	100,000원

티켓 구매 요령

- ① 전화 구매 02-549-0046
- ② e-mail management@symphonysong.com
- ③ 우편 제출 서울 서대문구 백련사길 39 (홍은동,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서대문문화체육회관 3층 심포니송



시즌패스

성명

연락처

E-mail

등급 ☐ R석 ☐ S석 ☐ A석

수령 방식 ☐ 현장수령(추천) ☐ 자택 또는 회사 주소

입금계좌 하나은행 206-910026-49104 (심포니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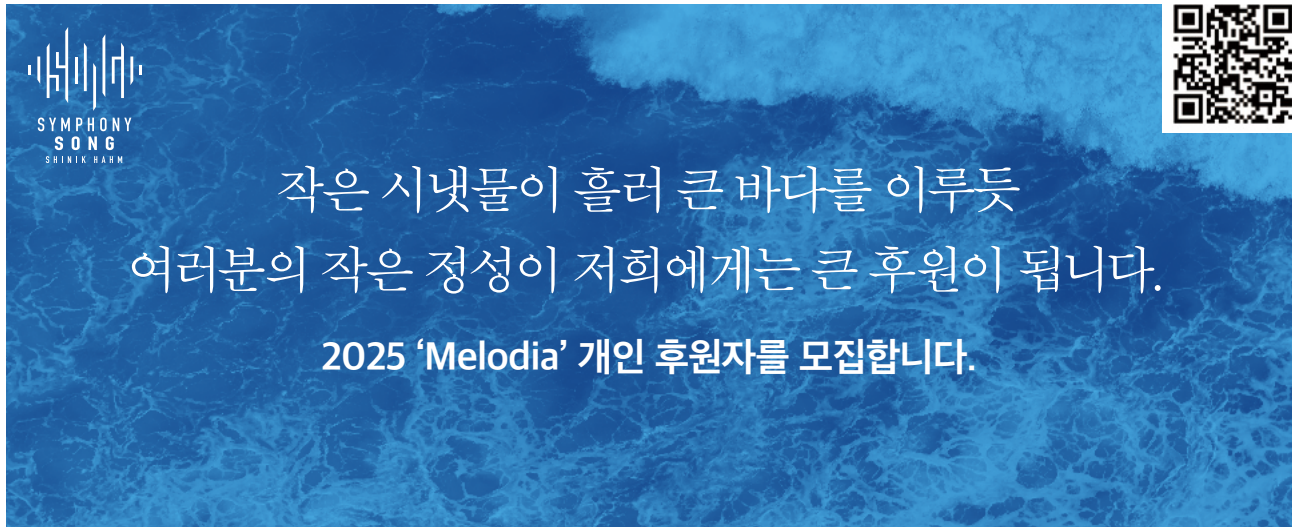
- # 2025 ‘Melodia’ 법인 후원약정서



☐ 동의 안 함

- 연락처 _____

후원계좌 KEB하나은행 206-910024-73904 심포니송	※ 신청 방법: 약정서 작성 후 하단의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로 전송 부탁드립니다. 심포니 송 전화번호: 02-549-0046 이메일: management@symphonysong.com ※ 심포니 송 후원자는 서울시 지정 전문예술단체로 후원해 주신 모든 금액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이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Mobile		
	E-mail		
약정금액	※ 월 기부 금액 / 매월 25일 자동이체		
	☐	원	
	☐ 500만 원	☐ 100만 원	☐ 30만 원 ☐ 10만 원 ☐ 5만 원 ☐ 3만 원 ☐ 1만 원
일시납	일시납	원	※ KEB하나은행 206-910024-73904 심포니송
자동이체 은행정보	은행명	예금주 명	
	계좌번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 동의함 ☐ 동의 안 함			
- 수집 및 이용목적: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수납 - 수집항목: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단, 거부시 자동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함신익과 심포니 송 정기후원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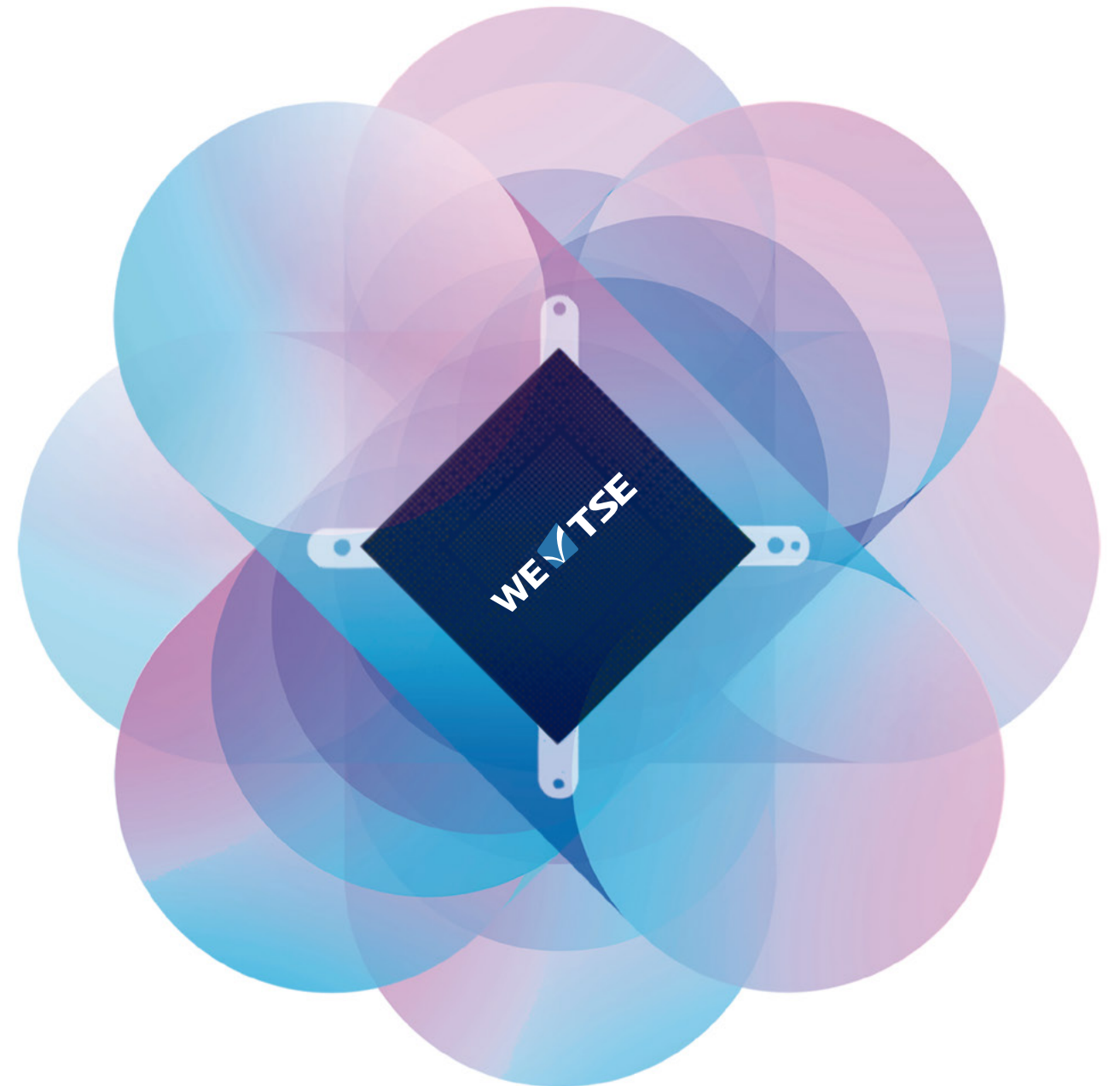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후원계좌 KEB하나은행 206-910024-73904 심포니송	※ 신청 방법: 약정서 작성 후 하단의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로 전송 부탁드립니다. 심포니 송 전화번호: 02-549-0046 이메일: management@symphonysong.com ※ 심포니 송 후원자는 서울시 지정 전문예술단체로 후원해 주신 모든 금액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이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TUNE THE 5G WORLD

TSE는 초고속 반도체에 대한
TOTAL TEST SOLUTION을 제공합니다.



TSE IS A GLOBAL LEADER IN HIGH-SPEED AND HIGH-PERFORMANCE SEMICONDUCTOR TEST EQUIPMENT.
TSE IS A PREMIER SUPPLIER OF BOASTING A BROAD RANGE OF PROBE CARD FOR WAFER SORT AND TEST INTERFACE AND SOCKET SOLUTIONS FOR PACKAGE TEST WHICH IS THE MOST DEMANDING TEST SCENARIOS.

우리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수 1길 189
www.tse21.com
TSE Co., Ltd.

나의
자신감,
삶에 대한
자신감

성형 MOLDING

피부 SKIN

메디스파 MEDISPA

비만 OBESITY

두피 SCALP

항노화 ANTI-AGING

지방성형 A FATTY MOLDING

성의학클리닉 A SEX CLINIC

세포재생전문클리닉 CELL REGENERATION CLINIC

L
A
H
Y
E
O
N

... FA & BIO분야 ...

글로벌 종합 기술기업

이차전지장비, 디스플레이장비, 리니어시스템, 물류자동화 로봇, 산업용 및 의료용 레이저
대한민국 장비산업분야 및 바이오 보툴리눔독소제제 미래에 새로운 기준을 만듭니다.



GLOBAL GOLF PLATFORM COMPANY GOLFZON NEWDIN GROUP

골프존뉴딩그룹은
‘새로움과 즐거움, 유익함의 창출’을 경영이념으로 삼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의 가치를 구현하는
글로벌 골프 플랫폼 기업입니다.

이웃 · 사회와 함께 동행하며
늘 새로운 골프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GOLFZON NEWDIN GROUP



영 유아를 위한 수제작 토퍼 매트리스

30년 이상 경력의 전문가가
한 땀 한 땀 탄탄한 토퍼를 제작해 드립니다.
(맞춤제작 가능)

영 유아용 KC 인증 및 모든 안전 검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새로운 커피 습관 : 언더프레서

언더프레서의 다양한 홈카페 컬렉션 제품으로
어디서나 간편하게 스페셜티 커피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Kurly **coupang** **NAVER** 에서 언더프레서를 검색하세요.



OFFLINE SHOP



<언더프레서 삼성점>

맛있는 커피와 함께하는 특별한 휴식을 경험해보세요.
www.underpressure.co.kr



<찾아오시는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106길 37, 1층(삼성동)
☎ 82 (0)2 2019 8990

UNDER PRESSURE

Wizard7

최적의 사이트 구축·운영·관리를 제공합니다!

풍부한 기능 탑재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각종 OS·DB·브라우저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본기능

- | | | | |
|------------|---------|-------------|--------------|
| HTML5(웹표준) | 반응형웹 대응 | WYSIWYG 에디터 | 편집 모드/사용자 모드 |
| 강력한 권한 설정 | 파일관리 | 웹 접근성 | 다국어 지원 |
| 높은 보안 | 메뉴 관리 | 백업/복구 | 워크플로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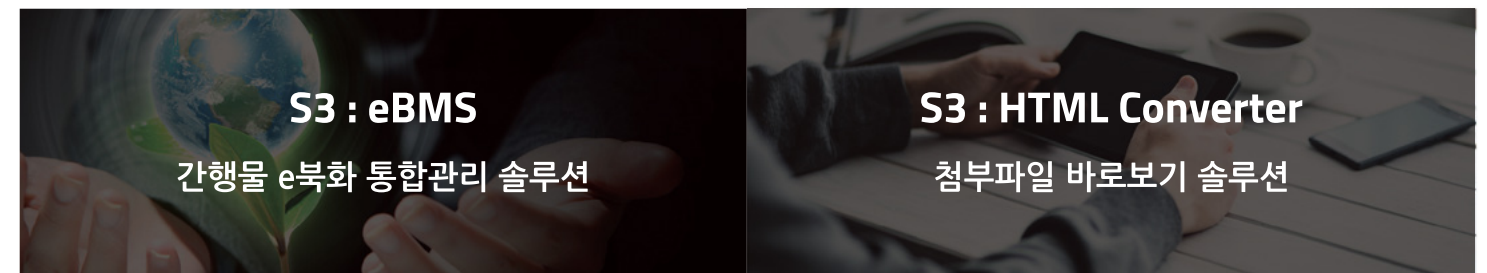
※기본 기능의 일부를 기재

모듈 필요한 기능을 선택하여 자유자재로 사이트 구축

- | | | | |
|--------|----------|-------|---------|
| 게시판/뉴스 | 이미지 슬라이드 | 인물 소개 | 폼빌더 |
| 일정관리 | 규정관리 | 연혁 관리 | 회원정보 수정 |

※상기 외 모듈의 다양한 기능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홈페이지를 위한 추가 솔루션



케이투웹테크(주)
www.k2web.co.kr

서울 금천구 가마산로 96 1510(가산동, 대륭테크노타운8차)
메일문의 : shlee012@k2web.co.kr / 상담시간 : 09:00 ~ 18:00

02-575-7721